

“한양도성 타임머신” 빅데이터 편찬 연구 -

인문 데이터로 동아시아사 톺아보기



CONTENTS

목차



연구배경 및 목적



스토리 발굴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활용 방향



연구배경 및 목적

배경 및 목적

한양도성 타임머신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는 문화재청 발주로 한양도성 권역 내 600년 역사를 ‘실감 콘텐츠’로 재현하는 과제를 안고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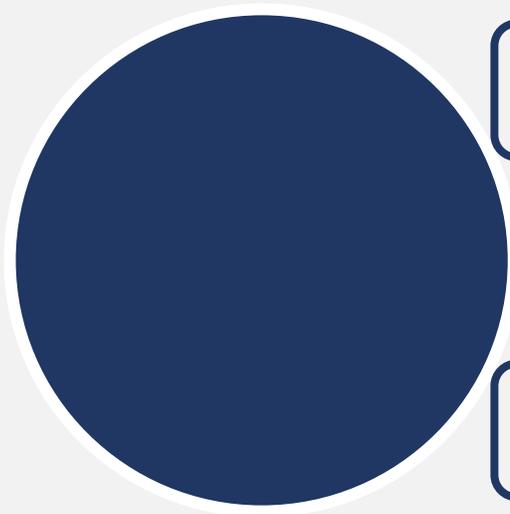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의미와 맥락을 보여주는 인문데이터를 기계 가독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연구가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한양도성 관련한 지식을 탐구할 수 있고 또 데이터들을 재구성하여 지식요소를 파악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배경 및 목적

스토리 발굴

한양도성 권역내 고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유산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특히나 중국 사신, 외교관들과 관련된 내용을 시맨틱 데이터로 구축하여 한중 고문헌, 외교자료들을 네트워크 데이터 아카이브에 포함시키고자 스토리를 발굴하였습니다.



#청나라

외교

외교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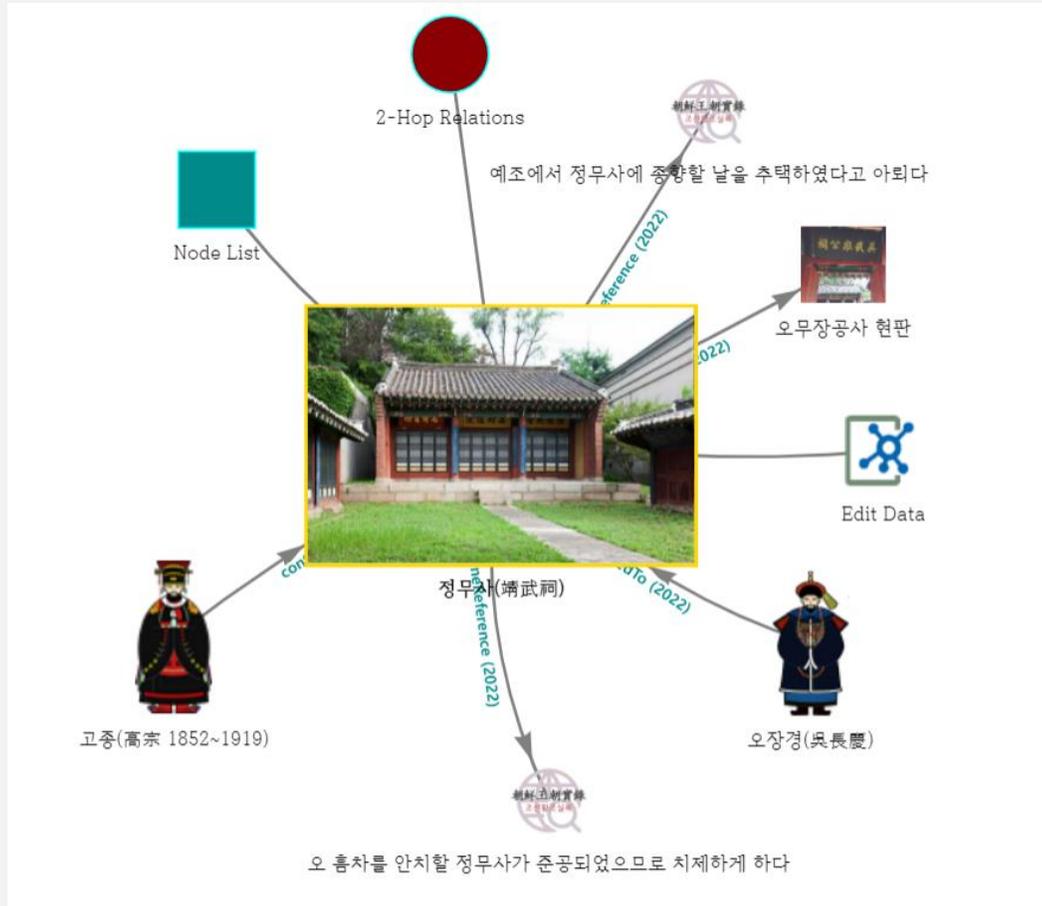
등의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역사적으로 궁금한 질문에 답을 찾아
가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스토리 1 : 오무장공사 참배



매년, 음력 5월 23일이 되면
화교들이 모여 서울 연희동
사당에서 제사를 거행합니다.

스토리 1 : 오무장공사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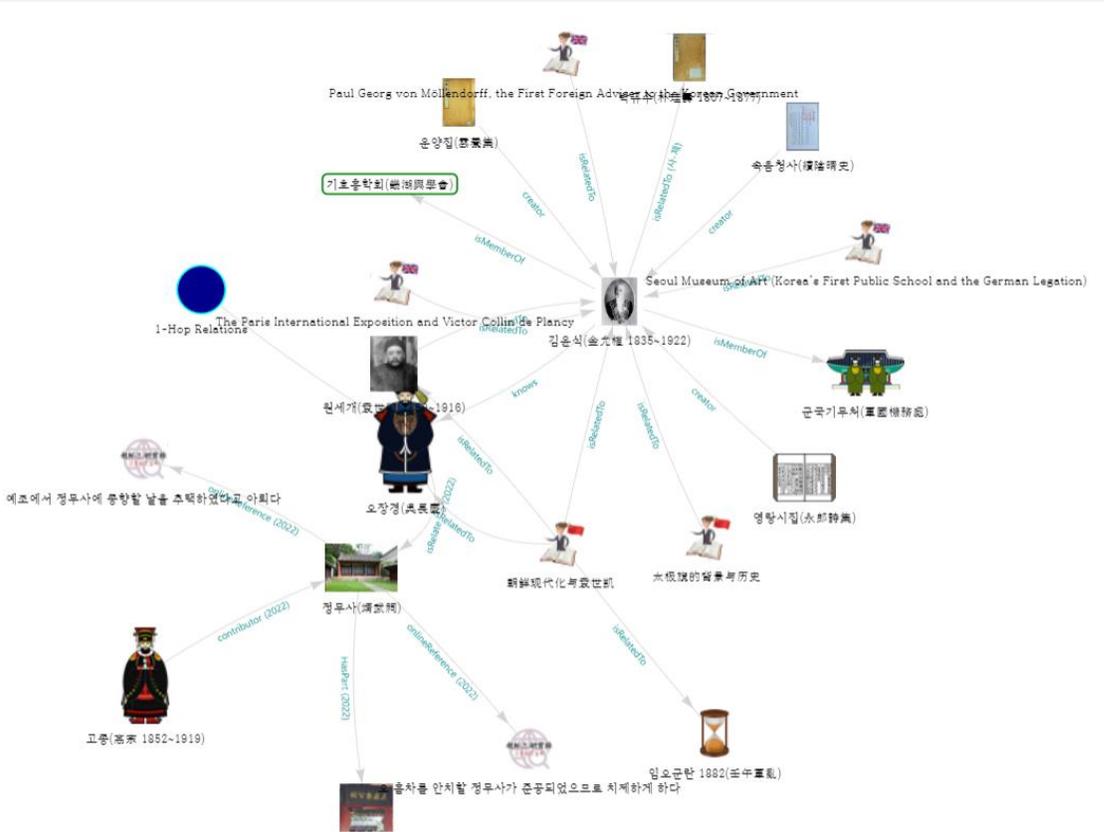
1882년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발발하였고 민씨 정권이 청조에 구조요청을 하여 오장경은 리홍장의 명을 받아 경군 3,000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군란을 진압하고 배후 인물로 지목한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여 명성황후를 권좌에 복귀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로서 고종은 오장경에게 큰 빛을 진 것입니다.

스토리 1 : 오무장공사 참배

사람들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사당을 보고 위안스카이 사당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장경 사당이었습니다.

오장경은 『조청상민수육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들이 공식적으로 한반도로 진출하여 화교 사회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를 열개한 비조로 꼽힙니다.



스토리 1 : 오무장공사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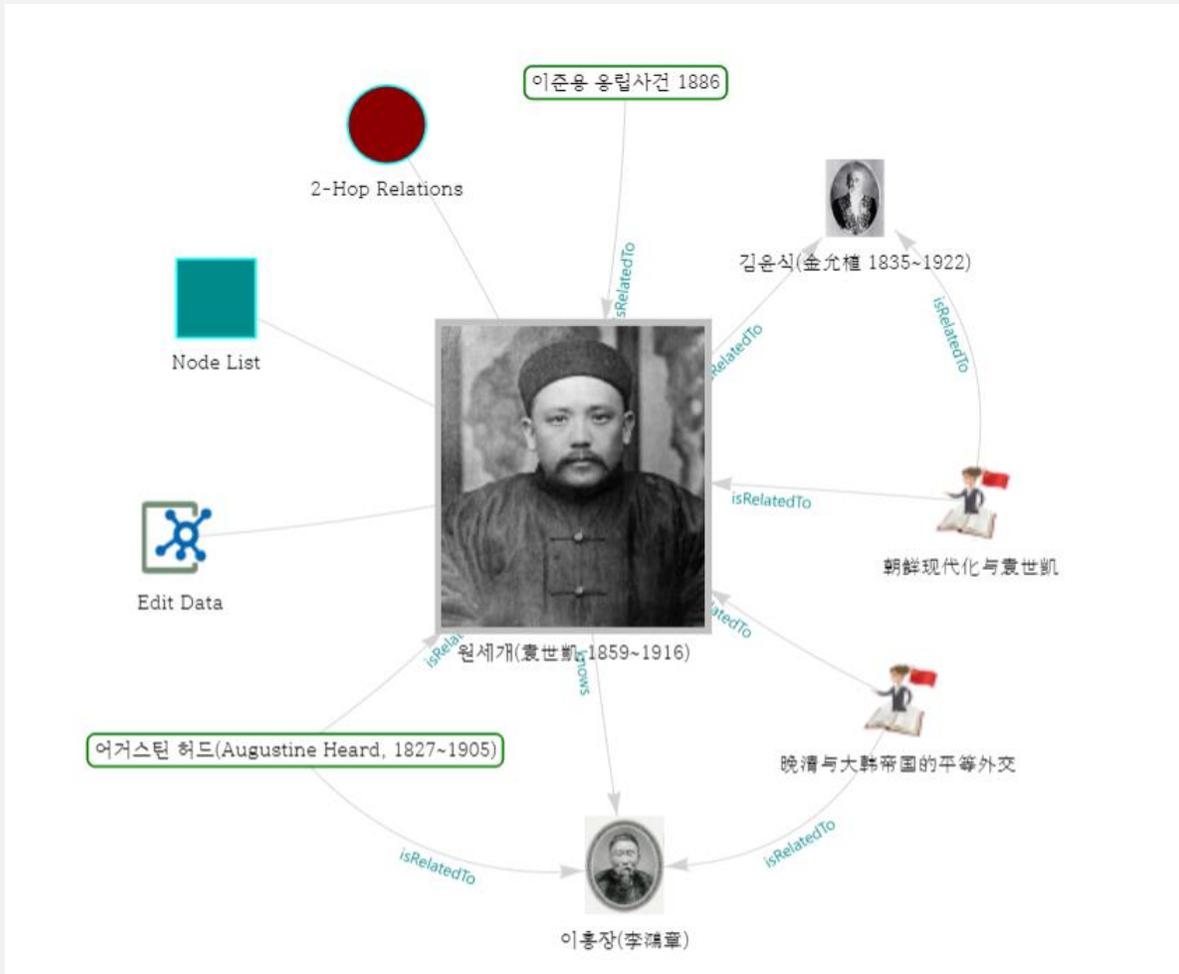


* 오무장공사 현판은 원세개가 직접 쓴 것이라고 합니다.

오무장공사는 한국 사회에서 거의 잊혀진 문화유산이지만, 임오군란, 갑신정변, 그리고 화교 역사를 알려주는 원시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오무장 공사는 1979년에 한성화교 중학교 뒷산으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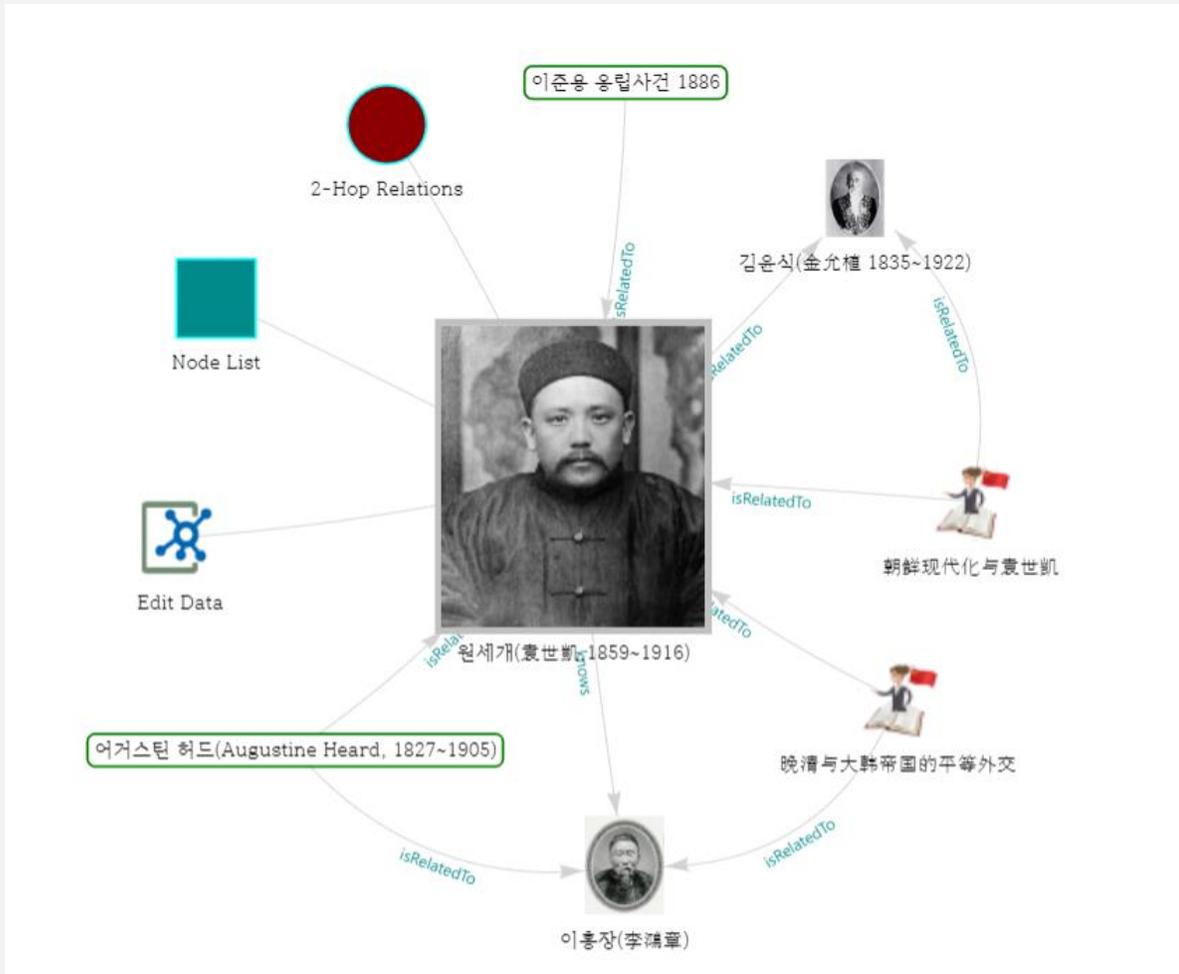
스토리 2 : 조선에서 벼락출세한 중국인



위안스카이는 조선을 무대로 가장 큰 성공을 이룩한 중국인일 것입니다.

23세살 어린 나이에 오장경을 따라 입국 하였으며 인생역전의 기회는 조선의 임오군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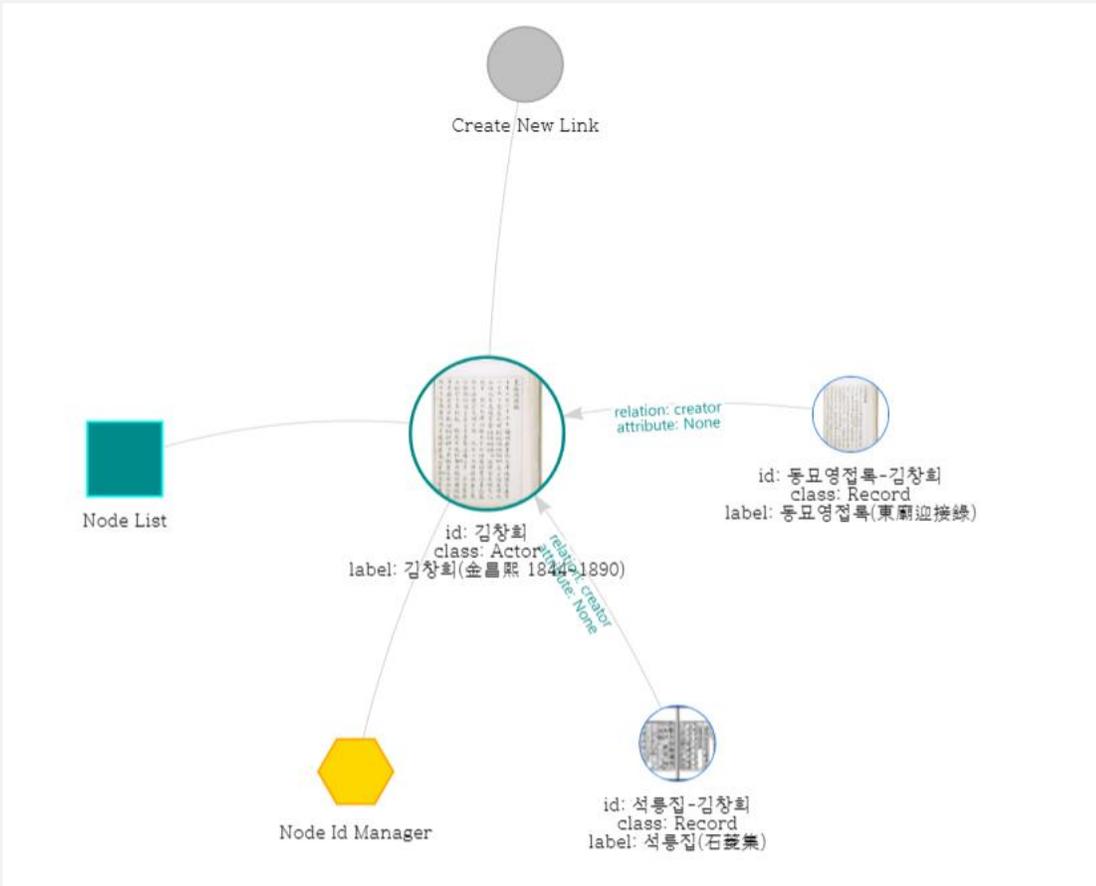
스토리 2 : 조선에서 벼락출세한 중국인



갑신정변때문에 조선 현지 책임자가 퇴출당하고 원세개는 곧 진수당의 후임자가 되었다.

이후 신해혁명 덕분에 최고지도자 자리에도 오르지만 '5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스토리 3 : 그들의 내정간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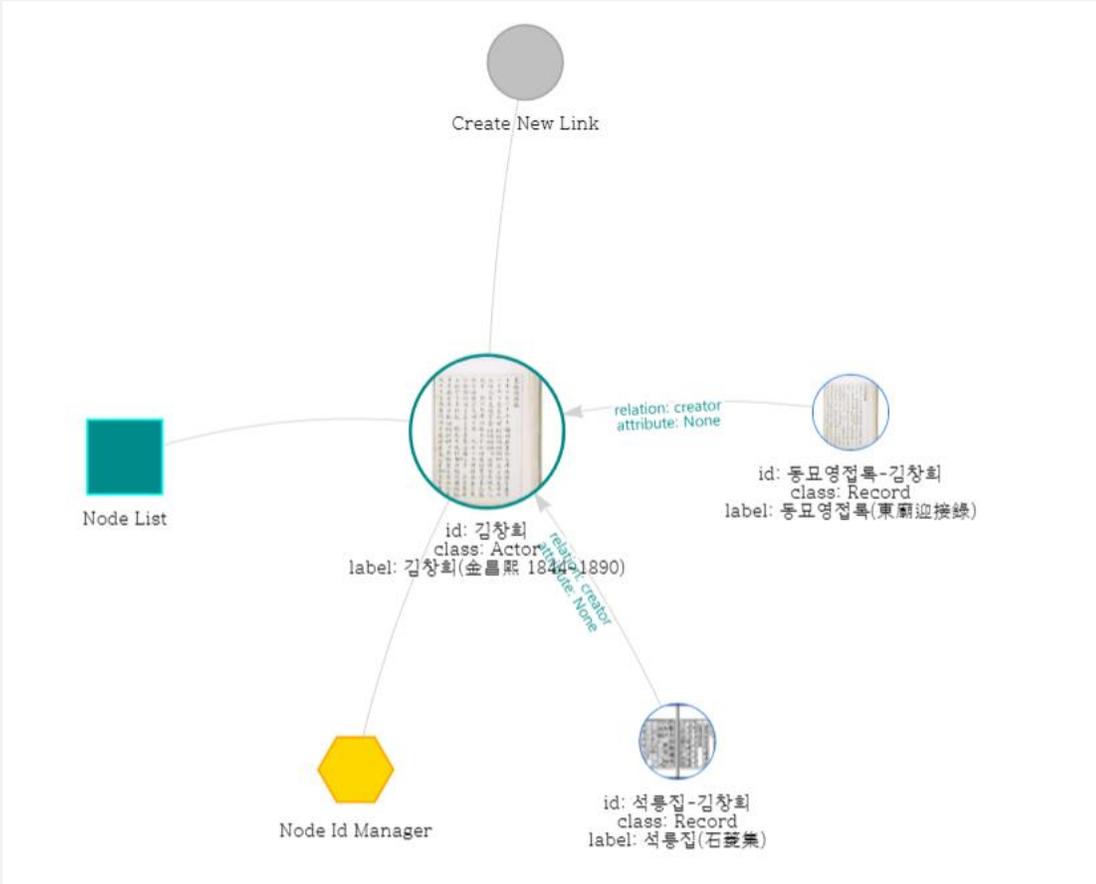


임오군란으로 중국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사태 수습을 맡은 것이 김창희였습니다.

원세개는 당오전(當五錢)의 폐해 등 내용을 포함한 편지를 김창희에게 10통 보낸 바 있습니다.

김창희가 쓴 『담설』에는 중국측 인사들의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스토리 3 : 그들의 내정간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김창희가 중국 측 이나들과 만나서 진행한 필담내용과 그들이 주고 받은 서간과 서문은 『동묘영접록』, 『대진척독』으로 엮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진척독은 2021년 원문과 함께 중국 복단대학교에서 출판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이 나눈 필담과 편지는 군사적 협력 관계 뿐만 아니라 상호 간 배려와 문화적 교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활용방향

지역연구, 역사문화비교연구에 대한 탐구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은 본인의 탐구영역내에서 자유롭게 온라인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편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저희 전체적인 ‘한국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는 조금 이질적이지만 중국인들에게는 무척이나 관심이 있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반면 또 한국 사회에서는 근대 여명기의 외세와 관련된 상징물들을 마냥 외면하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시대에 따라 그것들을 해결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 역사적 맥락에서 사료를 검증하고 데이터로 구축함으로써, 한중양국의 간극을 좁혀갈 수 있는 플랫폼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역사인식이 확연히 다른 문제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역사기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로 집결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현대의 갈등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마무리 해봅니다.
